

신행수기

무봉탑(無縫塔) <하>

김봉환 (43·충북 진천)

어렵게 구한 돌 쌓기만 하면 무너지
참회하며 장승 한 쌍 세우니 '흘가분'



무봉탑을 쌓기에 앞서, 임시로 집안에 쌓은 작은 탑에 모셔놓은 삼존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은 집안이라도 탑을 쌓고 그 안에 삼존불(三尊佛)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끝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몸은, 탑을 쌓으려는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당한 돌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금방이라도 완성될 것 같던 탑이 단 10cm도 올라가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처음 탑을 쌓을 때는 가다렸다는 듯이, 손끝에서 하나로 이어져 올라가던 돌들이 그때보다 더욱 정성을 들이는데도 하나같이 따르 노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업이나 원결을 쌓은 것은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들여보았지만 돌들은 잔뜩 불만이 쌓인 채 등을 돌리고 서있는 느낌이였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또다시 처음 ‘무’자 화두를 들었을 때의 막막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탑이라는 말을 얻었으니 이제 실행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회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자괴감이 불밀 듯이 몰려오고 있었다.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한없는 자괴감으로 전신이 지쳐나갈 때, 탑이 완성되면 그 안에 모셔려고 한 삼존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꿈에서 본, 불보살들의 장엄한 화현(化現)이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오체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 배, 이 배... 이마에서 시작된 땀이 등허리를 타고 내려갔지만 나의 오체부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런 고통도 그에 따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이때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가에 필설로 현안하기 어려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돌이었다. 흘만한 돌을 찾을 요량으로 내 손에 들려지다, 성에 차지 않아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던 그 불품 없던 돌들이

오체부지에 지쳐 가는 내 전신의 기혈(氣穴) 곳곳에 아무런 조건도 기대도 없이 불보살의 원대한 공력을 실어 건네주는 것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의 그 긴 시간동안, 내 손끝에 버려진 돌들이 내게 이런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그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환희심에 전신이 녹아 들고 있다는 느낌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이심전심(心心)이라고 했는가,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린 경지가 바로 불국토인 것을 속지할 수 있는 무한 공력을 받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경이로움이였다. 그토록 속을 썩이며 허물어지던 선택받은 돌과 내게 불보살의 자비를 그대로 전해준 버려진 돌이 내 입가에 핀 미소를 보고 하나같이 부처

가 되기를 소원하는 대발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력의 결과로 삼존 불을 모신 작은 탑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또 한번 탑을 쌓는 일이 내 운명인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루빨리 탑을 쌓아한다는 생각만으로 전국의 곳곳을 찾아다니는 험난한 여정 중에도 불심이 깊은 불자나 선지식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내 몸과 영혼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없었다. 생애에서 포기할 채 오직 탑 하나만을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나 자신의 정제마저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참기 힘든 인고의 시간들이 다시 몇 년의 세월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 사이에 인연이 닿는 산자락 곳곳에 작은 탑들을 쌓기도 하였지만 나의 가슴은 오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론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을 일순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자대비의 원력이 담긴 탑을 쌓는 일이었다. 그러던 지난 겨울 폭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현몽

(現夢)을 접할 수 있었다.

탑을 쌓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정수리 부위에 서기(囁氣)가 내려왔는데 그 무게를 들어보니 어느 생애인가 한 번은 보였을 듯 깊은 노스님이 나타나 ‘부처님 전에 올릴 나무 한 쌍이 쓰러졌으니 일찍 세우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다.

나는 스님이 일러 주신대로 폭설이 내린 속리산의 한 자락에서 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소나무 한 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소한 100년 이상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이처럼 쉽게 몸을 꺾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앞으로 몇 백년은 더 살 수 있을 소나무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불전에 바쳤다는 생각마저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스님의 현몽대로 쓰러진 소나무를 불전을 지키는 장승으로 되살리는 일밖에 없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속리산 자락에 탑을 쌓기 위한 대업(大業)의 시작을 알리는 장승 한 쌍을 세울 수 있었다.

하루빨리 불보살의 원력이 담긴 탑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도 생업과 기도를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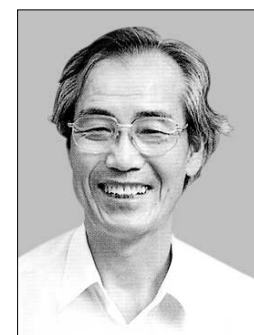
킬레이 수행일기 <하>

어느 날 ‘동방문화’ 모임에 나갔다가 뜻밖의 광고를 접했다. <동방문화> 발행인이 ‘만약 24시간 밖에 더 살지 못한다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글을 써내라는 것이었다.

죽음이 촉박한 사람의 의식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이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엄청난 강박관념으로 다가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글로 나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전제에서 기획을 했으리라.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 하에서 쓰는 것이니 과연 진솔한 글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반드시 죽는 것이라면 결국 태어난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이며,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죽기 위해서 사는 셈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누구도 죽어본 사람은 없다.



윤철환 시인·한국화가

어 짚어지고 내려오다 지계를 내려놓고 쉬다가 다시 일어나는 영거주춤 자체로 열반에 들었다. 한암 스님은 법상에서 법문을 하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은 자세로 열반에 들었으며, 지난 겨울에 입적한 서용 선사도 같은 자세로 열반에 들었는지 않은가.

살과 죽음을 이렇게 볼 경우 죽음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 이유가 되지

‘죽음을 삶으로 받아 들이자’ 고 다짐
집착 떨쳐버린 평상심의 일상 노력

그러므로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종교의 차원에서 천당(극락)이나 지옥이니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신념일 뿐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까닭은 사후세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한 것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니...

그러면 과연 죽음을 누구나 싫어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사림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안에 있는 용화선원에 갔을 때 절강(田圃) 선사의 생사관(生死觀)이 그의 진영 옆에 쓰여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생야 시사아(生也 是死也)’ 즉 산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달리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죽음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승들은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월 선사는 그가 일상적으로 해 오던일, 즉 펄감으로 주어오던 송발을 삼태기를 지게에 얹

듯하며 따라서 이러한 주제도 글을 쓴다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어디 그뿐인가, 대승불교에서 법회를 할 때마다 불자라면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어구를 주문처럼 낭송하고 있지 않은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나지 않는다면 죽지도 않을 것임은 더 말할 무엇일까.

문제는 중생 즉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다. 왜 중생의 입장에서 문제는 되는가?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아무 것도 걸릴 것이 없다면 죽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겠는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 병으로 앓은 자세로 죽음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집착이 많아 그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가능한 하다면 그러고 싶다. 쓰다 남은 원고가 있다면 그 원고를 마무리하고 싶다. 쓰다 남은 채로 죽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삶과 죽음을 둘 아니게 보는 여여(如如)한 생사관으로 선원과 일터, 가정용 오가며 평상심(平常心)의 삶을 살고자 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발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법요집·기초교리 集 과도 재발간.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빙가, 기타천불가, 법문. 기초교리: 불교란?, 부처란?, 대승과 소승의 차이, 사찰에서 쓰는 도구, 사찰경내 예법, 화장과 반배, 고두래, 예불문, 상보, 사성제, 상귀, 사설법, 상법인, 십이인연, 상연, 육바라밀, 상학, 팔정도, 신도오계, 보안상매론.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영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견주비면(의복), 면(의복), 광복, 무명, 모직, 마(의복),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매 60,000 ~ 셔츠 30,000 ~

행복할 길로 초대합니다. 열린다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체득하는 데에는 남녀노소,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고된되는 삶에서 길을 찾아 오직 오묘한 믿음과 수련 수행으로 정신건강, 몸건강, 돈건강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마하반야바라밀. 황토법당 백마사 주지 정산, 법상 협장. * 2박 3일 특강 수련수행정진에 동참하시어 큰 뜻 이루소서!